

우즈베키스탄: 타지크족 (Tajik of Uzbekistan)



인 구 : 1,327,000 (joshua project.net)

위 치 : 중앙 아시아 우즈베키스탄

언 어 : 타지크어

종 교 : 순니파 이슬람

복음주의자 : 0.05%

성경번역 : 전권 (1992)

#### 개요 / 역사

타지크 민족은 중앙아시아의 주요 종족 중 하나이다. 타지키스탄에 이들 중 대다수가 거주하지만, 이웃하는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키르기즈스탄 등 중앙아시아의 다른 국가들에도 두드러진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 오늘날에는, 100만명 이상의 타지크인들이 우즈베키스탄에 거주하고 있다.

타지크족은 그들의 전 역사를 통하여 반복적으로 침략과 정복을 당하여 왔다. 알렉산더 대왕의 군대, 7세기에는 아랍인들, 징기스칸, 투르크족, 영국인 그리고 러시아 제국이 이 종족에게 극심한 충격을 가해 왔다. 사실 수많은 침략이 타지크인들을 다른 지역으로 흩어지게 한 주요 요인이 되기도 한다.

"타지크"이라는 용어는 타즈(taj)라는 말에서 나온 것인데 그것은 "왕관"을 의미한다.(인도의 타지마할 궁전과 같은 어원이다) 이 명칭은 아마도 7세기 아랍인들이 페르시아어(타지크어)를 쓰는 사람과 터키어를 쓰는 사람을 구분하기 위해 처음 사용하였던 듯하다.

#### 삶의 모습

타지크인 대부분은 산악지대 농부와 유목민이다. 계절에 따라 돌아난 풀들이 양, 염소, 소, 소수의 낙타 그리고 약간의 말들을 기르기에 적당한 목초지를 만들어낸다. 그들은 또한 뛰어난 계단식 관개지를 산허리에 만들어, 더 높고 건조한 고지에서도 밀과 보리가 자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점점 더 많은 타직인이 과거 50여년 동안 도시로 이주했다. 대부분의 가정이 여름 기간 동안 농사를 짓고, 그 다음에는 그 해의 나머지를 보내기 위해 도시로 돌아간다. 이러한 경향은 결과적으로 그 지역의 노동력을 불안정하게 만들어버렸다. 일거리에 대한 경쟁이 생겨 그 결과 우즈베크인과 타직인 사이에 갈등이 종종 일어나기도 한다.

도시 타직인 대다수는 정부에서 제공하는 가옥에 산다. 반면에, 시골의 타직인들은 바위가 많아서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마을 공동체에서 산다. 그들은 거기에 굽지 않은 진흙으로 나즈막한 장방형 또는 직사각형의 집을 짓는다. 돌과 함께 진흙 벽돌이 기초에 사용된다. 평평한 지붕은 잔가지와 흙을 짝 채워 넣어 만들어서, 거적으로 덮여진 들보로 지탱된다.

여자들은 염색된 면과 실크로 만든 민족 특유의 다채로운 의복을 입고, 꽃무늬의 머리 스카프로 머리를 쓴다. 그들은 조끼를 드물게 입지만, 다용도의 쇼울인 "차도르(chaddors)"를 걸친다. 남자들은 셔츠와 바지를 입는데 때때로 품이 큰 누빈 옷에 벨트를 매기도 한다. 그들은 또한 머리에 꼭끼는 모자를 쓰는데, 어떤 사람들은 추운 겨울 동안에 터반이나 털모자를 쓰기도 한다. 상위층과 도시거주자들은 유럽 스타일의 의복을 입는 경향이 있다.

대부분의 끼니에는 녹차를 마신다. 빵은 주식이며, 타직인은 다양한 콩과 오디를 포함하여 가루로 찢을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으로든 빵을 굽는다. 그들은 또한 전분식품, 쌀, 포도, 건과, 닭고기, 양고기 그리고 야채요리를 먹는다.

타직인의 사회는 가부장제도로써 가장 나이가 많은 남성연장자에게 그 권위를 부여한다. 모든 유산은 남성들을 통하여 물려지게 되는 것이다. 결혼 후에 젊은 신부는 시집에 들어간다. 전통적으로 결혼은 가족이 결정하였다. 그러나 오늘날 대부분의 타직인이 그들 자신의 배우자를 자유롭게 선택한다.

마을과 공동체들은 명문가의 남성 지도자로 구성되는 "마즐리(majlis)"라고 하는 평의회에 의해 통제된다. 의장은 평의회로부터 선출된다. "친족구조"는 아직도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인 생활면에서 지배적인 역할을 한다. 타직인은 긴밀히 연결된 공동체를 이루어 살며 매우 호의적인 민족이다.

## 신앙

비록 약간의 시아파가 존재하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타직인들은 하나피(Hanafite) 계열의 수니파 무슬림이다. 이 민족의 약 10%가 무종교인으로서 분류된다. 이것은 아마도 러시아 무신론의 압박에 의한 결과일 것이다.

## 필요

사람들은 아직도 복음에 대해서는 닫혀진 채 남아있다. 오늘날 우즈베키스탄에서 타직인 신자라고 알려진 사람은 없다.

## 기도제목

\*우즈베키스탄으로 가서 타직인과 더불어 그리스도를 함께 나눌 장기 선교사들을

일으켜 세우시도록 기도하자

- \*주님께서 이 귀중한 사람들에게 꿈과 환상을 통하여 자신을 드러내시도록 기도하자
- \*하나님께서 타지키스탄 정부 지도자들의 복음에 대한 마음을 여시도록 기도하자
- \*하나님께서 예배와 중보기도를 통해 그 땅을 깨치기 시작할 기도팀들을 불러내시도록 기도하자
- \*타직인 가운데 강건한 지역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자

참고자료

<http://www.joshuaproject.net>